東亞日報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淺薄한朝鮮事情宣傳(上)

井上準之助의妄論

朝鮮總督府를始하야半官的金融機關이요實業機關인朝鮮銀行朝鮮殖産銀行東拓會社等의主腦者들이 朝鮮에 日本人의資本的勢力을擴張하야 朝鮮을經濟的으로支配하려고 印刷物로宣傳을하며 或은遊說演說로나 또는日本內地의 實業家招待等各種手段과方法을다하여왓다 그리하야日本에잇는 資本家의朝鮮投資를誘引하고 日本의資本家는朝鮮을從來하며視察한일이만히잇섯다 그러나其實朝鮮에와서實相을보면朝鮮事情宣傳者流에게直接드른말과는多大한相異가잇슴을發見하고 投資할意思가생기지아니할뿐아니라不景氣에疊加된大震災以後新設보다도回收에밧부고 擴張보다도縮少整理에困沒하며 또는朝鮮總督府의特別保護下에서 事業을벌여노은朝鮮銀行以下 朝鮮에잇는多數한 日本人의事業機關들이 오늘날이貌樣으로失敗와整理에걸려서 醜態를暴露한것을目見하게되는故로 그네들은困難한內部의關係를참고 朝鮮에나오려다가도 中止하게된다 그럼으로日本資本家 朝鮮誘引策은殆히失望에歸함을따라自然出資를中止하고야 케는 其實資本力도업는것을利用하여가지고 朝鮮에나오는高等失業者이들이 朝鮮投資를 强히勸誘하는 模樣이다

二

政黨的色彩를 바다勢力이分裂되여잇는日本의 實業界에는政變이생길때마다 必然的으로實業界에도 影響을受하야重要한實業機關의 主腦幹部에變動이잇고야마는것이다 그리하야 밀여나가는사람中에는自己系統의 政黨이다시勢力을回復할때까지는 閑暇한高等失業者이되야서 朝鮮 滿洲 中國等地로무슨자리를맛트려고도라단니다가 自己系統의政黨이다시勢力을엇게되면 다시뛰여드려가서 엇더한機關에그地位를圖得하게되나니이와가치오늘날日本의政黨과實業家間에는 極히密接한聯絡關係가잇는것이다 憲政會에도憲政會系統의實業家가잇고 政友會에도政友會系統의實業家가잇서서 各히自己系統의 政黨으로부터至極한保護를밧는터인데 以前憲政會가勢力을엇고 政友會가凋殘하게되매 政友會系統의實業家中에는참으로『失業家』가되야 名目을植民地視察이라하여가지고 무슨버음을맛트려고 朝鮮 滿洲 中國等地를도라단니다가 自己나라에도라가서는 所謂視察談이라고 試驗를不顧하고이러고저러고 豪言壯談으로 世人의耳目을소긴다

三

前者에朝鮮에왓다간 井上準之助라는사람으로말하면 政友會系統의人物로일즉某々重要金融機關의主腦로도이썻든사람이다 同人이엇던經濟會席上에서朝鮮事情을말한다고『日本의投資家여! 朝鮮에着目하라』는一恨의演說을하얏다는데그要旨를보면 『日本의國民生活을 安定식히자면物資의供給을圓滑케하여야할것인데 此에는朝鮮 北海道 樺太와如히未墾地가잇다』하고다시 『朝鮮人의 敎育은今日로보와서는過度히發達되야도리여弊害를남긴다』고하엿스며 『朝鮮人은 傳統的으로短期耕作과北方移住를조와하는習癖을가젓스니 이것을北方滿洲으로驅追하고日本人을그뒤로移住케하는것도計劃하여볼일이라』고한後에는또 『日本이朝鮮을領有한意義를完全히하고文化政治의根底를作하라면日本의資本을朝鮮에注入함에잇슬뿐이라』고하엿다

그다음에朝鮮의開發的 價値를紹介하되 『朝鮮總督府의十五個年計劃인四億萬圓의投資로四十萬町步를開墾하야 一千二百五十萬石의增收가되면日本人의食糧上缺乏이緩和될것과米産費가日本에比하야殆히半額으로足하다』하엿스며 『朝鮮米가多量日本에供給되는反面에는日本의産米業者에莫大한影響이及할지니그境遇에는日本의産米業者를保護키爲하야關稅問題가生하리라』는데까지말하엿다 그뿐아니라蠶業과棉花와石炭等이 總督府의宣傳대로長遠하게되면 日本에잇는事業家들은 朝鮮의事情을危惧하지말고奮起渡去하라』고하엿다

漁業組合 補助規則改正

第一條 漁業組合으로써組合員의漁獲物의共同販賣其他顯著한施設을하는者에對하야는本令의所定에依하야豫算의範圍內에補助金을交附함

第二條 第三號及第四號는削除

第三條 組合員의漁業組合에對하야는理事者一人의給料擬算年額의半額以內의補助金을交付함 但其年度의共同販賣價額이組合員의總漁獲物의價額의二分의一以上에達할所望이有한者에限함

前項의補助金은一組合에對하야五百四十圓을限度로함

第一項의補助金交付期間은一組合에對하야三年을超過함을不得함

第四條 前條의規定한者外國庫는組合員의利益을增進할目的으로共同施設을할漁業組合에對하야는其施設費豫算年額以內의補助를交付함

前項의補助金은一組合에對하야二千圓을限度로함

第五條 補助金의交付를受하려하는者는法定書式을具하야道知事經由每年四月末日까지朝鮮總督에申請할事

第六條 第四條의規定에依하야補助金交付의指令을受한後漁業組合共同施設事業에着手할時는其期日及完了豫定期日을定하야道知事經由朝鮮總督에屆出할事

前項의共同施設事業을完了한時는其施設費決算及事業의評價를定하야곳道知事經由朝鮮總督에屆出할事

鈴木總裁는 가장適任者

大藏省田次官談

鮮銀野中正副總裁의辭任은兩氏가鮮銀을今日狀態에陷케한直接間接의責任者임으로整理上에여러가지不便이잇는結果今同에勇退한것인듯하고此點에關하야는鈴木新總裁는無關係임으로便利하며또鮮銀은從來日銀과疎隔하엿스나新總裁는正金은勿論이요日銀과도親密한關係가잇고特히正金의上海支店長이엇든關係上滿洲中國方面의事情도精通하야同氏의就任은對外的으로好結果가될것이요同氏는純全한銀行家로爲替關係에도精通하야鮮銀整理에는適任者이니오는八月總會에서發表하리라고云々(東京電)

專賣局 輸入減을覺悟

煙草不賣

今村專賣局長談

昨年의旱水災의打擊은專賣益金中六十萬圓의歲入을減少케하고그影響은다시十四年度歲入成績에도波及하고또繼續不況과春期雨量의過多로採鹽은三割九分이減收하고煙草도六月末現在에昨年보다二十五萬圓의賣上이減少한바今年水害로는아즉도그前途를念慮하는바即晩秋期의天然如何로豫定額一億五千萬斤을採鹽할수잇다할지라도煙草의收納乃至製造煙草賣上에밋는打擊이요勿論昨年旱災以上은아니나

耕作 地被害와收納倉庫浸水는甚大한損害이며特히洛東江沿岸을中心으로거의全鮮的被害狀態인煙草收入前途를悲觀할수업는結果專賣局에서는全然困難한狀態임으로十五年度豫算도前記와가튼不振과旱災打擊을考慮하는關係上旱水被害를豫想하야編成하엿슴으로아마今年度以上의歲入增加는設備充實乃至復舊工費等不得已緊急支出이잇스나例庇可能性이업슨일로況且今回水害가一層擴大하면歲外歲入減을覺悟할것이다云々

水害와一般經濟界

今番水害는六十餘年來로 처음보는大洪水라합니다 田畓의荒廢家屋의流失崩壞鐵道其他交通機關의破損六畜의死滅等 그被害가莫大한中에도無數한人命을일허버린것은참으로可痛한일이외다 이러한直接損害를方今바다가면서도 결코죽지못하는사람으로는 水害後의生活問題를생각하지아니할수가업습니다 多少의參考가될가하는생각으로 今番水害의一般經濟界에及할影響에對하야各有力한實業家의意見을紹介하고자합니다

米價의大不安

降而不息하는霖雨는 人心을時時刻刻으로恐慌末措에驅케하고잇다 아직確實한雨報를接하지 못하엿스나 初旬霖雨의侵害를 바든南鮮地方이 再次의洪水를 遭遇하야加重의損害를被하엿슬것이며 西北兩地方에도 洪水의 侵襲을遭한곳이만아서 作物人畜의被害가多하엿슬것이다 그中에도中部地帶의 中央인京城은 洪水는前無의大洪水로 漢江의水量이四十二尺에此로因하야水源地에洪水犯濫하야 作業을中止하게되고 發電所에洪水浸入하야發電을不能하게되고 電信電話의不通으로通信이不能하고 軌道의破壞로 地方交通이斷絶되며 京城은飮料水斷絶에陷하야疲不能으로實로 大恐慌에陷하엿다 그와가튼都市民生活에重大한機關의破傷과 故障이生하야모든作業을 中止하게되는以外에漢江沿邊及京城附近의 破壞及流失家屋數五千餘戶 罹災人口二萬六七千 그中에는死傷者도多하다한즉 이엇지前無의大慘事가아니리오 洪水後의第一의問題로重大한것은破損機關復舊問題이다 아직確實한調査에及치못하야 損害金額如何는知키不能하나 今回의洪水는全國的임으로非常한損害高가意外에多할것이며 復舊는罷히水沈에依하야作業을中止하엿든것은減水만되면 如前히復舊될터이나 急水에밀치며破壞된것이라던가或은流失된것은 다시回復하기에는 巨大한復舊費를要할것이고 非復舊期間이又長할것이니 이는不景氣에加하야『夏枯』極甚한데에洪水의侵害를添한것은 經濟界에적지아니한不安을주리라한다 다음에는 다른部分의損害보다도作物의損害이다 今年으로말하면春耕期以來 氣候가比較的順調로進하야오든날까지의各種作物은各地를通하야好狀態이엿섯다 그래서一般은將來의豐作을推想하고貯藏米를거의賣出하엿스며 日本의米價好況을따라朝鮮米를吸收하야 洪水前의在鮮米는約百萬石內外에不過하리라는것이商業者側의觀測이엿다 아직도端境期까지四五個月이나남앗는데今日에在하야在庫米百萬石이라는것은 實로拂底의狀이엿다 그래서正米時勢는昨日騰貴하는他面에도리여日本米가逆移入되는奇觀을呈하엿다 이것이洪水後에엇더할가하면混沌狀態에在한京城에서 白米一升四十九錢이라고하지만은 事實以上과如히在庫米數量이大減한今日에在하야 全國을震撼케하며洪水가一般의民心을動搖케하야其實作物의被害가意外에大하야凶作의感想이反面되게되면 米價에大不安이露現치아니할가한다(S氏)

金融은少繁

韓一銀行專務 金漢奎氏談

各地의一切交通이杜絶되야地方事情을全然알수업는까닭으로全鮮的損害程度를말할수업습니다만은京城의如히十八日夕頃에漢江沿岸一帶의水害地에訪問하야詳細한것은知할수업스나今後復舊에關한必要資金으로金融界는多少繁忙을要할듯합니다만은그影響은甚大치안코微々하리라생각하며 目下朝鮮財界의注目을惹起케하는것은鮮銀總裁가突然更迭된것이니此如何를따라財界에甚大한波紋이잇슬듯하다云々

徐々復舊

漢城銀行頭取 韓相龍氏談

曠古初有의大洪水이라其今年의經濟界에及할影響이莫大하다는것은只今한마듸로말하기는어렵습니다만은金融界에波及하는影響은그다지甚大치아니할듯합니다 民間의損害가莫大한結果이엿슴에비추어總督府의責任支出도잇슬터이며將來의困難하고徐々히復舊될것이올시다 數年以來의經濟上不景氣에比하면 市民의食糧在米가減하야 自然米價가上騰할듯하며 이러케大洪水가잇슨後에는大抵豐年이된다하니 오히려農村의經濟는그러케悲觀할것이 아니올시다

自重而已

海東銀行取締役 黃潤德氏談

너무나未曾有의大洪水로金融界를념려하는사람이만흐나 今年은全穀의豐收가예상되고 七月上旬까지는順調로나아가든바 洪水의被害가만흐나 다행히秋收에는 相當한收穫이잇슬듯하니 金融界에는自重할뿐이라고생각합니다云々

遊資減縮

韓一銀行頭取 閔大植氏談

此大洪水는아마도東京震災以上의損害가잇슬듯합니다 漢江沿岸一帶만하드래도그前途가實로悲慘합니다 그前途는資金이豐富한銀行界에도 遊資가減縮될것이며 罹災民을救助扶相하는精神으로 建設救生이가장必要하다云々

布木界 打擊이甚大

東洋物産會社々長 金潤冕氏談

交通이杜絶되야詳細한일은不明하나地方의水害도甚大하엿슬것은틀림업스니萬若然則小作人의穀作이不能하게되면 布木界의打擊이甚大하리라云々

綿絲界 何等無關係

與一社支配人 李賢在氏談

綿絲布는目下無需要期이며또日本市勢에全然左右되는結果大洪水가잇다고何等의影響을밧지아니하며交通杜絶로貿易이頓無하고日本市勢의不明으로市內도一層閑散할뿐이나또水害로供給不足의念慮가업고水害의反動이업다고云云

米穀界 人心에關係

內大市場內米穀商 金樂培氏談

平日에도南大市場內米商만四五千石의在米가잇든것이近日內에는買入할正米가殆無하야目下에는四五百石假量에不過하고또雜穀도激減하야千餘石의在數가잇슬뿐임으로營業者들도恐怖不已하는바이요萬若交通이今後數日을持續하면人心에關係가잇슬듯하다고云々

平壤北金組 貸付利率引下

地方經濟

平壤北金融組合에서는그間財界不況으로保守的方針을取하얏스나今後부터는一般에게資金調節을極力으로힘쓰기爲하야各實業界를通하야大々的으로組合員을募集하며一方으로는利率을引下하기로去十五日役員會에서決議하엿다는데組合員의出資方法과利率引下等은左와如하다더라 ▲加入組合員은第一回出資金十圓 ▲擔保付貸付日步五錢을四錢八厘 ▲無擔保貸付日步五錢을四錢七厘 ▲擔保付手形割引料는日步五錢을四錢七厘로하고 ▲無擔保手形割引料는日步五錢을四錢八厘로하엿더라(平壤)

元山輸出穀物 米、大豆萬餘石

六月中에元山港으로부터日本에輸出된穀物의種類와數量價額은如左하다더라(元山)

▲玄米 五千百十四石에價額十八萬一千四百七十二圓 ▲白米 千百四十石에價額四萬七千二百九十三圓 ▲大豆 五千六百九十六石에十二萬四千八百六十一圓

舊馬山驛業績

舊馬山驛에서取扱한業績은아래와如하다 客月中

全州三銀業績 預金增貸付減

全州三南銀行上半期營業成績의大要를들은즉預金二十三萬二千六百餘圓貸金六十四萬二千三百餘圓이라는데昨年度上半期에比하야預金에는七萬餘圓이增加되고貸金에는四萬九千六百餘圓의減少되엿스며純利益은二萬餘圓에達하엿다더라(全州)

通川經濟狀況

重要物價=本年六月中通川邑重要物價는如左

品名	單位	最高	最低
正租	一石	[illegible]	[illegible]
白米	同	[illegible]	[illegible]
粘米	同	[illegible]	[illegible]
大豆	同	[illegible]	[illegible]
小豆	同	[illegible]	[illegible]
木米	同	[illegible]	[illegible]
地方粟	同	[illegible]	[illegible]
滿洲粟	一袋	[illegible]	[illegible]
朝鮮鹽	三斗	[illegible]	[illegible]
麥粉	一袋	[illegible]	[illegible]
砂糖	百斤	[illegible]	[illegible]
廣木	一疋	[illegible]	[illegible]
玉洋木	同	[illegible]	[illegible]
麻布	同	[illegible]	[illegible]
苧麻布	同	[illegible]	[illegible]
石油	一箱	[illegible]	[illegible]

二、金組狀況=本年六月末日現在의通川金融組合의預金과貸付金은左와如한바昨年六月末日에比하야預金은九九〇圓八錢의減이라더라

▲預入金 定期預金 一七、五五四、六四 貯蓄預金 三三、三八四、八五 振替預金 二、七二九、七〇 計 五三、六六九、一九

▲貸付金 保證貸付 三七、三八六、六六 動産擔保 一、四一六、〇〇 不動産擔保 二六、六一一、〇〇 定期貸付 四八、一〇七、〇〇 年賦貸付 五九〇、四三

三、郵便貯金=本年六月末日現在通川郵便所의貯金受拂口數와金額은如左

▲受入 口數一二三〇口 金額一一六二九七圓八〇錢 ▲拂出 口數四二四口 金額九四四五圓二一錢(通川)

釜山各商店의 支拂期日統一

釜山各商店에서는在來로支拂期日이不一致하야毎月一日부터三十一日外지各其便利를計算上一大不便을感하야恒常統一을絶叫하야오든바今番釜山商業會議所와組合聯合會에서率先하야七月부터實施하기로去十三日부터市內各戶에宣傳文을配布하엿는데그統一의日期는左와如하다더라

一、每月計算은二十五日로終了하고二十八日까지請求할事

二、支拂期日은二十九日부터末外지(二月에는二十六日부터二十八日外지)

三、從來는午後가아니면支拂치아니하든것을今後부터는午前九時부터開始할事(釜山)

安城重要物價

安城邑內湖西銀行支店에서調査한五月中當地重要物價는아래와갓다더라(安城)

品名		最高	最低
白米	一石	[illegible]	[illegible]
玄米	一石	[illegible]	[illegible]
大豆	一石	[illegible]	[illegible]
粟	一石	[illegible]	[illegible]
麥粉	一袋	[illegible]	[illegible]
朝鮮鹽	一斗	[illegible]	[illegible]
中國鹽	一斗	[illegible]	[illegible]
苧布	一疋	[illegible]	[illegible]
廣木	一疋	[illegible]	[illegible]
明太魚	一駄	[illegible]	[illegible]
石油	一箱	[illegible]	[illegible]
牛皮	百斤	[illegible]	[illegible]

成川蠶業興旺 年産額七千石

蠶業界가지고잇는平南成川郡은氣候와風土가最히蠶業에適合하야古來로實로나라도이를成川紬라면名聲이嘖々하엿든데最近에至하야서는一般蠶業家의發展에對한知識과重要心과一般當局의指導로蠶繭의品質이나其他모든進步되야가고또한그에對한自覺으로보아서從前보다長足의進步를試하야本年度産繭이六七千石에達하니朝鮮蠶繭界의名聲이라고할수가잇다더욱히近年에는繭價의暴騰과比例하야一般蠶業家의發繭熱은더욱々々白熱化하야年々二三割乃至三四割

異族治下에 呻吟하는大印度

壓迫中에도政治的活躍 決裂에서統一로

=六=

英國은締結의使臣

政治的으로말하면 一九二四年은協成의해엿다 그리고 또한協調斷絶의해엿다 前者는日本及印度에서 後者는英本國에서成立되엿다 英本國에서는昨年春에『맥도날드』에依하야最初의勞働黨內閣이 되엿다 그러나 이內閣은 멀지아니한期前에 벌서自由黨의支持를일허버렷다 그리고 秋期에일으려서는 自由黨과의協調가完全히破壞되고 遂히內閣의崩壞가되엿다 이에反하야

=日本에서 는特權內閣을攻擊할目標로 三派의協調가成立되엿다 三派는共同戰線에依하야 三派의協調는되지아니하엿다(近狀말하자면다스)一派는最初부터三派協調를目標로하는 三派의協調엿다 卽自治派는中立派의協調엿다 勿論中立派中에도 若干의隱健派는잇섯다 그러나 彼等은 暴力의使用及其他過激手段에는 反對하엿스나 그러하다고 英印協調에는 元來不贊成하엿다 彼等은다만 一派가 本國과同樣이엇다 이點은 印度도大略卽立되엿스며 三派는共同戰線의政府에서 大略同樣의것과갓다 다만 印度에서는前에말한外의것

=立法議會(下院)의自治派와中立派의聯合은中立派의名士만하더라도 가만히英國의態度에 主要問題를 취하엿다 ... 立法議會의 自治派와 中立派의 協調는 自治派의 要求이엿다

=政黨聯合 普通政黨이 聯合한다는 것은 ...

定州籾共同販賣

定州郡廳에서는지난十一日에籾共同販賣를實施하엿다

光州湖銀業績良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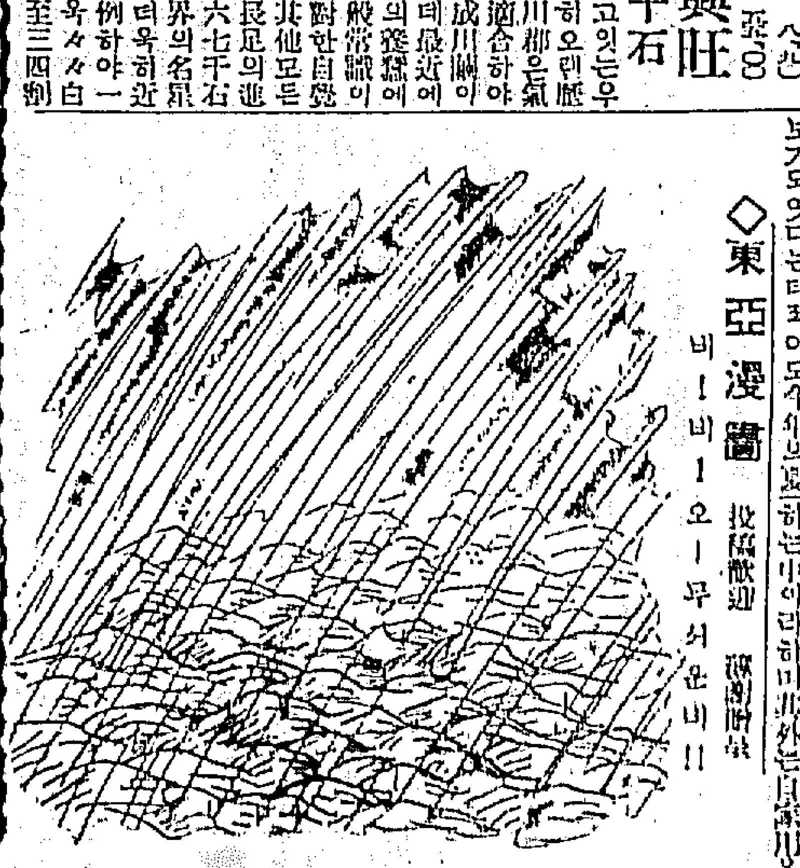
咸南金組消息

義州金組業績 預金、貸付共增

義州郡邑內義州金融組合의六月末日現在預金은四萬五千六百八十三圓...

◇東亞漫畵 投稿歡迎 漫畵部

비ㅣ비ㅣ오ㅣ무서운비!!



豆滿江流筏高 二十一萬尺締?

豆滿江의今年流筏豫定高는二十一萬二千尺締으로江水가빼우減하야六月末外지의合數는上陸九萬五千尺締에不過하나十月末外지는豫定高를流筏할모양인데그詳細는아래와갓다더라(單位尺締)

◇營林廠七萬五◇大陸兵器五萬◇板東林業一萬二千◇豆滿林業四萬五千◇茂森公司二萬◇撫泳園五千

橫說竪說

◇森林은速日降雨 ...

◇그러나昨日부터는、비도개고、漢江은漸次減水、此所謂悲慘中喜消息

美活石鹼 美활 活비 石누 鹼

過酸化硬用 色白하여지는

美活石鹼 香油 本舖 吉田久四郞商店

中元 夏衣半價大特賣

東京市日本橋本石町 關谷商店

肥滿劑 東京市日本橋 阪野藥房

腎氣不足完治 神經衰弱 華源泰

四時常備之健胃消滯藥 령신환 朝鮮賣藥株式會社

京城紡織株式會社 各地特約店

삼성표 不老草 목탁표 三神山

우리의입을 옷은우리의 손으로 SUPERIOR SHEETINGS KYUNGSUNG PANGJIK HOISA

毛生液 朝鮮文說明書 山崎榮三郞

三百名一時溺死?

避難하여잇든瓦家倒壞로

救助의途가杜絶된蠶室里慘事

독섬부근잠실리(蠶室里)전부가물에잠기어 그곳주민들이집웅우에피란하여잇든중이라함은지지에이미보도한바어니와 이제그곳으로부터온 정보를듯건대 남녀로유의 피란인삼백여명이올라안젓든 개와집한채가 십팔일오후팔시경에 드듸어문허저 그들은 전부참혹히죽은모양이라하며 혹엇던사람들은 나무도막가튼것을타고 물에떠스나 사나운물결에 쓸녀살길이업시되엿다더라(동부면화)

二十餘名이慘死

昨日午後二百名救出

流失家屋은四十餘戶

滿目凄然한新川里慘狀과救助狀況

시외독도면신천리(市外纛島面新川里)주민들은 생명이위독하다하야왕십리 소방조와경관들은 지난십팔일 오후열시에 구조하려출발하얏다가 십구일오후한시에 이백명을구호하야 가지고도착하얏는데 그들에말하는바를드르면 이십여명이죽엇다하며류실가옥은삼분의일이라더라(동부면화)

六名救助

십팔일오후여섯시경에왕십리로부터 떠나려오든 집웅우의여섯사람이한강리에서군대의손에구조되엿더라

府內浸水千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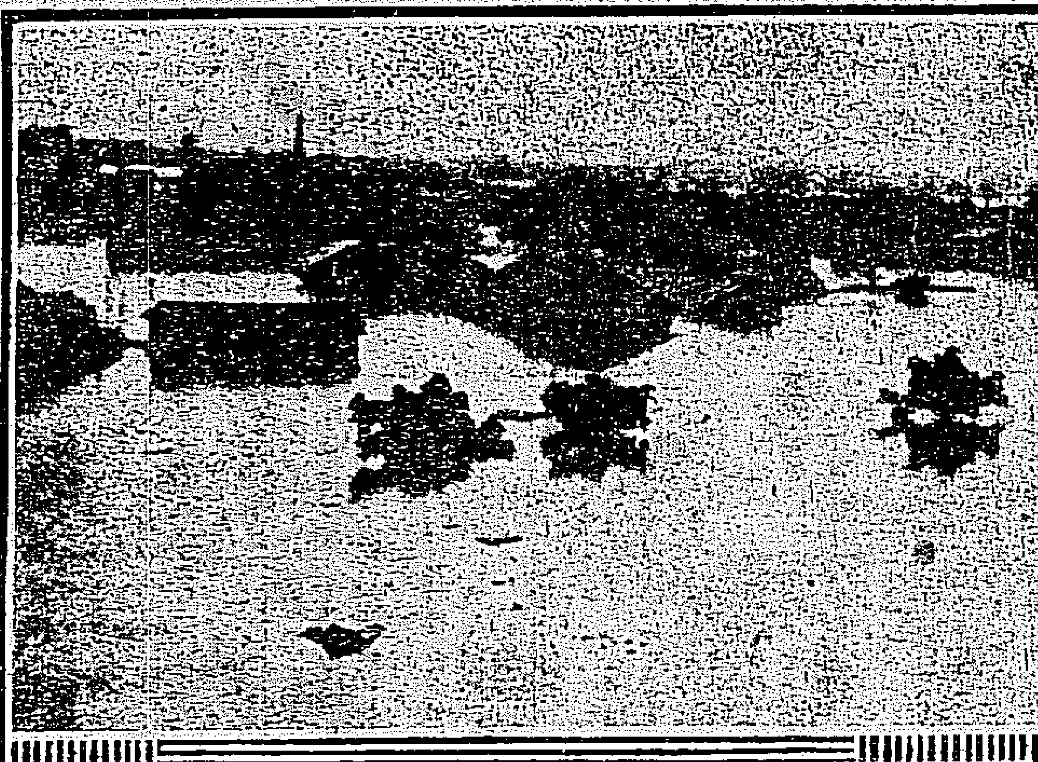
종로와서대문관내 연일폭주하던 비와한강의 홍수로시내에 침수된가옥이 만타는데아직까지 자세한통계는 알수가업스나 작십구일 정오까지조사된 시내동대문 룡산관내를뎨한외에 각경찰서관내 침수가옥통계는다음과갓다더라
▲鍾路署管內 七百四十戶 ▲西大門署管內 四百三十六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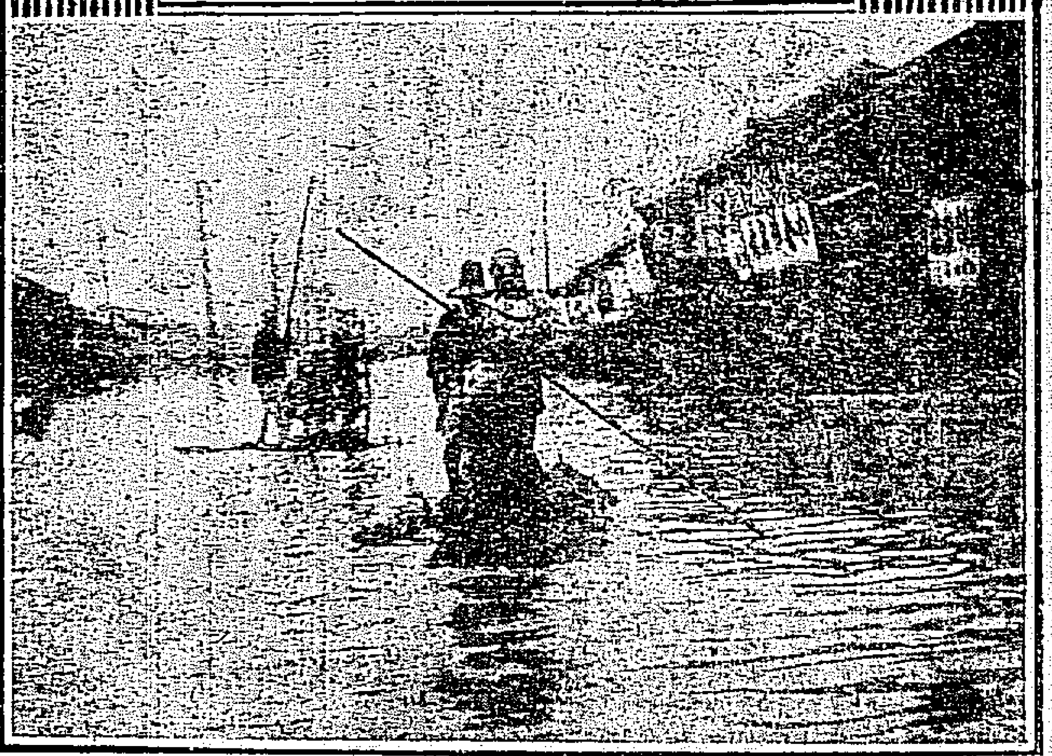
永登浦水災民은

山上으로避難

目下食糧缺乏으로大困難

인천우편국장(仁川郵便局長)으로부터발송한무선뎐화에의하건대 영등포(永登浦)우편소는침수되엿스며 십칠일북행차승객일백사십명과주민 이천명은 텰도관사와산중에피난한바 식료품이 결핍된 까닭으로당디로부터 쌀열다섯석을 보내엇더라





◇……룡산일대에침수된전경(上)과삼각뎡에배목을하고단니는광경……◇

低氣壓이西北으로

북도디방에비가만히온다

今日부터天候晴快乎

경성인천간(京仁間)의 통신이 두절되엿슴으로 인천관측소와 련락이업서 자세한통보는 듯을수업스나 무선뎐화의 보도하는바에의하건대 서해안의 우세한 저기압이 차차 북조선디방으로흐르는터임으로 추부이북에는강우가 만흔모양이라더라(京城測候所發表)

汶山長湍

사이가못단닌다

십구일오전열한시사십분경성우편국당의보고에의하면평양(平壤)방면렬차가 십구일아츰에 장단(長湍)에 도착하엿슴으로 그이북의 선로에는 고장이업는듯하야방금조사중이나 십구일오후한시취수한 소식에의하면 개성봉동(開城鳳東)은기차가통치못하엿든바 선로가복구되야 십구일아츰에 뎨륙렬차가 장단에서평양에까지 돌아갓슴으로 문산과 장단사이는 통치못하리라더라

全滅된蠶室里

流失家屋六百餘戶

慘死者또十餘名

소방조와 동대문(東大門)경찰서 구조원이 경비선 세척을타고 재작십팔일 밤열시에 왕십리(往十里)를떠나 잠실리(蠶室里)방면으로 향하여가다가 십구일오후한시에 잠실리 리재민팔십명을구조하여가지고 신촌리(新村里)에 도착하엿다는데 자세한소식은아즉미상하나 잠실리는 멸하여 류실가옥이륙백여호요 죽은사람이 전긔 백명외에 십여명이라더라(동부면화)

決死隊二名

目下生死不明

救助出向中消息杳然

조선의근구제회에서는 신천리(新川里)에남어잇는동포가 지금물속에싸이여생사를아지못한다함을듯고 즉시결사대를자원하고나선김홍작(金鴻爵) 김태룡(金泰龍)량씨는 십팔일밤신시경에목선을타고신천리(新川里)에로향하얏는바 아즉것 도라오지안을뿐아니라 그들의생사조차 불명한중에잇다

清凉里減水

청량리(清凉里)방면에는십구일 오전한시부터동열시까지에여섯자가량이감수가되엿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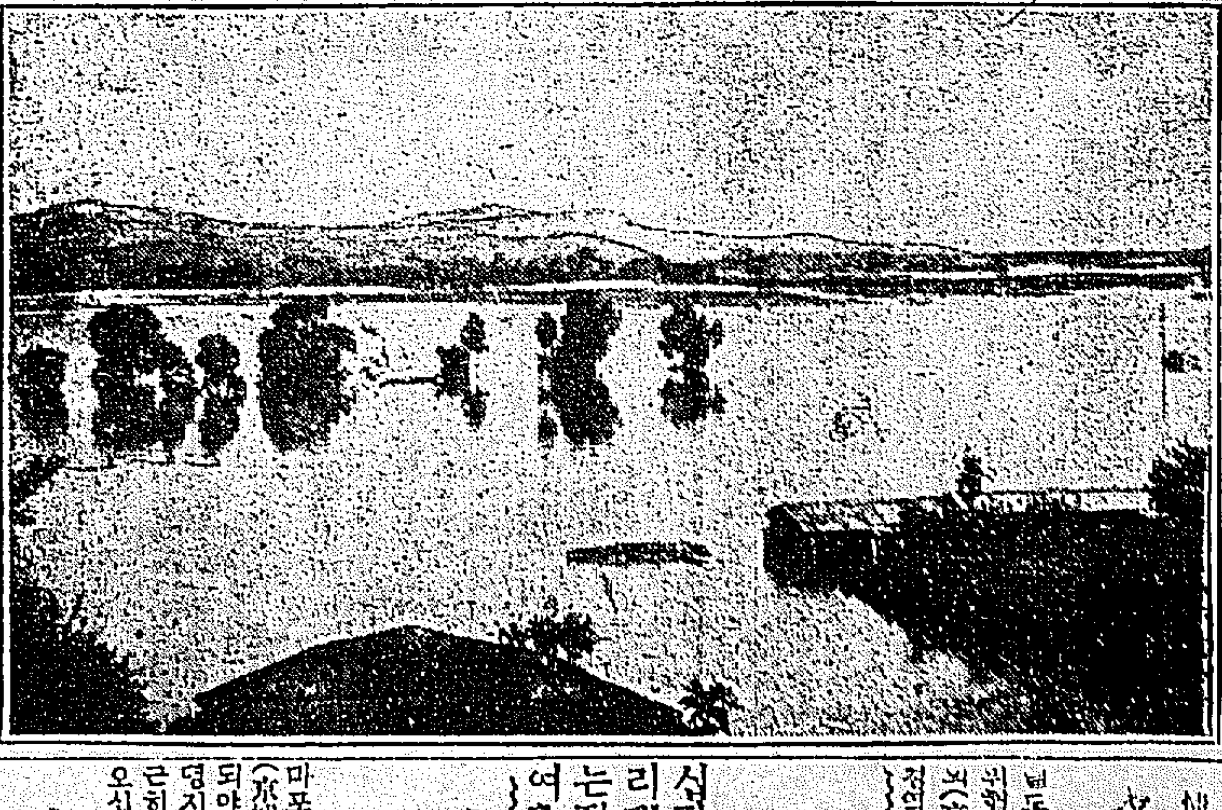
鐵道各線의被害

룡산이남은통신두절로불명

금번수해로인하야각선철도가불통된다함은 이미보도한바 어니와지금 와지에조사한 대타 아래와갓다더라

◇京釜線 ▲京城龍山間京町附近으로부터그以南線路上에浸水 ▲漢江鐵橋는橋梁兩岸及第一第二兩橋의中間線路流失 ▲橋梁은無事한듯 ▲以北은通信杜絶로不明

◇京義線 ▲新村水色間三哩五十鎖로부터五哩間十尺浸水 ▲水色陵谷間五哩七十鎖附近六尺浸水同七哩十鎖附近六尺浸水 ▲陵谷一山間十三哩二十鎖附近一尺五寸浸水 ▲一山金村間十九哩七十鎖附近十五鎖間築堤崩壞 ▲汶山驛以北은通信杜絶로不明



◇왕십리에서바라본뚝섬방면의뎡경

災害를奇貨로奸商輩跋扈

各處市場在米不足

이번 대홍수로인한 한강연안일대의 쌀운송을할수도업고 또뎐력(電力)이 업는까닭으로 경성의 정미소(精米所)가 일제히 일을하지못하게되야 경성안의쌀은 배틀더러 핍핍한 여갈형임으로 삼십만 경성시민의불안은 이로형언할수 업는상태인데 이런기회를리용하야 간악한소매상들은 무리하게 쌀갑을올녀밧는곳이 만흠으로 경찰당국은이런자를엄중히 취톄하고 ……

◇石拔米 一石四十七圓 ▲同白米上 一石四十六圓三十錢 ▲同上中 四十五圓 ▲同上下 四十四圓

	都賣	小賣
石拔米	一石四十七圓	新一升四十七
白米上	四十六圓	同一升七二
同中	一石四十三圓	同六九
同下	一石四十二圓五十錢	同六五

堅志洞市場 견지동시장안의 쌀은평일에 삼사백석(三四百石)이잇든것이요새에는 칠십석(七十石)에불과하나 이것도 날로감소하며 갈분으로 이곳의 갑은 남대문시장보다 조곰빗가

南大門市場米商 남대문시장안각미상에는쌀이평균이삼십석싼바 그시세는아래와갓다

野菜價騰貴

시외의 밧은홍수로모다침수되야 경성안 야채갑은 현저히올느고 또들어오는것이업는바 앞으로 더욱놉게 될모양인데 그갑은아래와갓다

양배차(一貫)二十五錢 五錢高
호배차(十本)二十五錢 十錢高
파(一束)五錢 一錢高
외(十個)十五錢 二錢高
감자(一斤)三錢 十錢高
가지(十個)十五錢 三錢高

暴利取締와廉賣所設置

◇鍾路一個所、南大門一個所

◇花園、明治町一個所

근래에엄든 홍수참해로 경성의각미곡상의 폭리를막기 위하야 작일오전에 총독부식산국(殖産局)에서는 관계당국회의를열고 대책을강구 하엿다는데 경성창고에현재잇는 외국쌀이 삼천이백석이요좀쌀이 일천사백석 이요한백미(韓白米)와 조선쌀도 상당하다는 모양이라하며 외국쌀과좀쌀은 서로석거도 관계치안코 ……

▲외국쌀등은한되 이십팔전 ▲좀쌀 이십팔전 ▲일등한되 …… ▲조선쌀한되 …… 판매소를 신설하야 쌀을 공급하게하겟다더라 ▲종로공설시장 ▲남대문공설시장 ▲화원뎡한곳 ▲조선국방면한곳

仁川署魔窟捜索

경성디방법원에 당하엿다 사건의내용은 …… 밀조선녀자와 소녀를 다리고주봉부되는모마굼을조사할인도하 국방면으로 밀행하는일의 참모다더라(인천)

全道水害詳報

京畿 …… 忠北 …… 忠南 …… 全北 …… 計 ……

◇道路其他被害

三十六尺二寸으로減水

(昨日午后四時까지)

本町署巡査暴行

공연히지나가는애를싸려

큰중상을당하게하고도주

檢事出動事實調査

시내본뎡경찰서(本町警察署)에 근하는 모일본인순사는 십팔일오전 팔곱시경에 술이취하야 …… 양봉장(養蜂場)에노희잇는벌통을 당케하고 머리를가리고자 하는데 ……

往十里各團體活動

시외왕십리에서는 …… 보병대(步兵隊)와 공병대(工兵隊)가협력하고 구조하야 …… 다시 왕십리 ……

二百餘

避難民救助

危機一髮의

時急히改種하면

例年의半分은收穫

각디논의피해와대홍수

消火栓으로給水

급수곤난한경성의수도

금번홍수에뚝도(纛島)의수도수원지가 침수되야 시내에는 단수가되엿는데 ……

減水를보아發電作業

삼십육척으로만감수되면 불일로부흥코자준비중

마포(麻浦)에잇는 경성뎐긔회사의 발뎐소(京城發電所)가 이번홍수에침수되야 ……

決死隊生還

작일오후한시오십분에 ……

십팔일오후 여덟시로부터 뚝이홍시에 …… 리재민을구제하려고 왕십리를 떠낫든결사대는 자식구일 오후한시 오십분에 전부수용하여무사히도라왓더라

各線發車中止

咸興臨時總會

◇휴지롱

避難船顚覆으로三百名溺死

◇生還僅히八名◇廣州郡東部面船里住民◇

십구일오전열시경에경기도광주군동부면선리(廣州郡東部面船里)의수해민삼백여명은 큰배를타고피난하여오다가 선레가밤나무에걸니어 전복되야 삼백명이일시에참사하엿는데 그중에 여덜명은 구사일생으로 겨우 사라나 동일오후다섯시에 왕십리로 헤엄을처내려왓다더라(십구일오후여섯시동부지국면화)

金牌

머리를검고길고윤택하게합니다

朝鮮 野菜秋蒔原產種子 各種代價表進呈
朝鮮平壤 內田百花園

上海三一公學校 男女募集

高漢承編

라인美話

定價七十錢 送料拾貳錢 一冊爰先金

그전날밤

定價一圓 送料十四錢 一冊爰先金

發賣所 博文書館 新舊書林

● 人間快樂의源泉? 老少元氣强壯專門劑

補血藥을服用하시오

定價 一圓 三十日分 拾參圓

京城府 …… 京一藥房

兒童聖經學院

十六日現在總督府統計

십륙일밤 현재의각도 수해조사는아래와갓더라

◇死傷被害家屋

	死	傷	流失	倒壞	浸水
全北	一〇	一	一六	五四	二六三
全南	三	一	一	一	[illegible]
慶北	三五	一	三	三九	三〇九
慶南	二	一	三四	二五	五〇三六
黃海	二	一	一	一	一
京畿	一	一	一	一	一
忠北	一	一	一	一	一

	道路	橋梁	堤防	人員
京畿	一	一	二九	[illegible]
忠北	一	一	一	四〇
慶北	五〇	一六	一	[illegible]
慶南	七	一	一〇〇	一〇〇〇
黃海	一	一	一	一
計	一〇〇	二三九	七六四	三八三

우중에 무릅쓰고 사방구호[illegible]

작십칠일오후[illegible]한시경삼세갓치 자동차를모라당디지나던 (安寧) 나리는비를무릅쓰고인천경찰서 [illegible]방면으로 급행하여 무엇인지 상륙(上陸)사범구엽을[illegible] 미행하[illegible] 순사와 중국인 남녀두명[illegible] 민에[illegible]

宋秉畯 嗣子被訴

음악의 구들사 [illegible]

아비지의[illegible]에 시변에서 소송하는 [illegible] 송병준(宋秉畯)백작의 [illegible] 송종헌(宋鍾憲)씨는 [illegible] 서 시변원[illegible] 소송을 [illegible]

조치하고 음[illegible] 시변원에서 [illegible] 통령부(統監府)양허면(揚化面)에 게시하고 지금까지 돈을내지 아니하므로 [illegible]

[illegible] 하여 [illegible] 티(成興郡?) 대배당 [illegible] 티(小作料) 대배당에 시는 이덜 [illegible] 로 고소[illegible] (昌?)

水災民과應急對策

「熱烈한同胞愛로 相扶相助하라」

饑饉救濟會檄文配布

조선긔근구제회에서는 금번증고미유의 수해참상에 대하야격분일만장을 시내각처에 배포하얏는데 그내용은 위기가급박한오날을당하야 피차의 열렬한동포에(同胞愛)로써서로도옵고붓잡아주자는 의미와 이런긔회를타서폭리를 취하는자가 만으니 그를박멸하자는것이엇다

活動狀況

삼대로활동

通信班도設置

조선긔근구제회에서 칠십여명사람이모히여 시내에잇는 각단테와련합하야 각각대를 나누어가지고 활동하는중이라함은 루보한바어니와 이제 그자세한것을보도하면

東幕 楨五高 朴來源 金昌俊 朴達成 許益煥 閔昌植 外十餘人

往十里 金璋鉉 楨泰鉉 李忠俠 外十餘人

京城驛 宋浩璃 馬鳴 金淵 許貞淑 鄭鍾 金許伊 外十餘人

그리고 다시삼대로분하야 시내보순회하며 동정금품을 모집하는중인바

第一隊 申泰楨 黃圭泰 外 三人

第二隊 洪寬植、趙仁王外三人

第三隊 金顯大、楊在植外三人

이렇듯여러 방면으로 분대하야 활동을 개시하는중임으로 자연히 각대와의 사이에 련락을취할피로가 잇다하야 통신반을 두게되엿다는데 통신방원은

通信班 金東明、金奉鉉 량씨이오 조선긔근 구제회의사무소인 시내수표정에중앙부(中央部)를두고각대에게 식료공급이며 동정금 취집등 긔타만반의 중앙사무를 취급케 하는바 씨명은다음과갓다더라

李鍾爾、金瑗載、徐廷爵、裴成龍、金燦、金若水

女性團體出動

조선녀청동맹회와 경성녀자청년동맹

조선긔근구제회에서 금반 홍수로 인하야 재민을 구호코저 비상히 활동하는중에잇는바 조선녀청동우회(朝鮮女性同友會) 경성녀자청년동맹(京城女子靑年同盟)에서도 조선긔근구제회와 협력하야 활동코저 경성역방면에서의 연금도거두며 식사공급을 하는중이라는데 그씨명은 다음과갓다더라

許貞淑、金許伊、高明子、鄭鍾嫀、朴暎嬉、楨二龍、李允英、文聖淑、金水月、成錦淑

千餘名에食糧供給

지금 신수철리(新水鐵里)에는리재민 천여명에 대하야 조선긔근구제회에서는 십팔일에 련막을치고구호하며 식량과의약등을공급하엿다고

侍天敎靑年會出動

시내에잇는 시텬교청년회 에서 도출동하야 조선긔근 구제회와 협력하기로하고 이미 방일천오백여개를가지고 참가하엿다더라

어린이團體의 水災民慰問會

시내 어린이사(社) 오월회(五月會) 다리아회(會) 등삼소년단톄의 련합으로 수해리재동포 위문회를 조직하엿다는데 동회에서는 전회원을 셋대에 난호아 한대에 대원일곱사람식 도자두사람으로 합 아홉사람이 각처로 다니면서 위문하리라하며 특히 리재민중소년소녀와 병자에게는 위문품으로 방을배급한다더라

水災義捐金募集

警官이突然禁止

일구이언의 부당경찰서

조선긔근 구제회에서는 시내각 방면으로나누어 수해구제 동정금품을 모집하든바 원래는 십팔일에 금지하며 모집원을 경찰서에 허가하얏든 것을 경찰에서 품가한을 경유하고 방송하얏는데 그는 구제회 집행위원장 리종린(李鍾麟)씨가 본뎡서에 가서 교섭한 결과 금후오륙일간은 묵인한다는것을 말하고 오날와서는 돌연히 금지하엿는지 그본뜻을 알수 업다는 바 금지하는까닭에 대구제회에서 가치매를 나누어 활동하는 중 매우 분개하는중이라더라

京城醫師會의 臨時救護班出動

本社와協同하야 十九日부터

금번수재의 리재민을구호하기의 하야 경성의사회(京城醫師會)에서 임시구호반(臨時救護班)을조직하야 본사와 협동하야 각방면으로 활동하게되얏는데 십구일부터 이십일일 이틀의 삼일간은 좌긔제씨가 출동구호하게 되얏다

▲朴啓陽氏▲皮虎洗氏▲趙東盛氏▲朴容南氏▲朱榮善氏 外 藥劑師一人、看護婦一人(漢陽病院) 女子基督靑年會員 一人

이것다는바 죽은녀자의 남편은 어데로 피난을 가고 하인녀자와 어린이 한명은 군사령부구호소에 지금잇고 죽은녀자의 이름은 한명으로 놀라 쇠저죽은모양이라는데 시톄는 아직 못치웟다더라

浸水로 日女溺死

아들도죽은듯

룡산수해의참상

작십구일 오전일한시경에 룡산우편국 압물에서 젊은일본녀자 시톄하나가 발견되엿는데 그녀자는 원팔정(原八町) 삽륙번디 렬도사택에잇섯다는바 자세한것은 알수업스나 작십팔일새벽에 더밧이 문허저 급히 물이 드리밀려에 미처 피난을못하고 그만빠져죽은듯하다하며 죽은녀자의 가족은 남편과아희들과 하인으로이 조선녀자한명이엿든 사십세된

仁川水源池 遂破壞

결사대출동

로량진(鷺梁津)에 잇는 인천(仁川)의수도수원디도 침수가되여 파괴가되엿다하야 경성수도과에서는결사대(決死隊)가사람이십구일오전열시에명부토목과에서도 동디에 고총독부 토목과에서도 동디의실황을 조사키위하야 씨명을 파견하리라더라

◇東亞日報工場一同 二十一圓六十錢

본사공장에 재근하는 공장원일동은이번부내외(府內外)의수재민을위하야 공장일이하삼십여명이 각각 박봉의 몃푼식을 모여내여모다 이십일원 륙십전을 본사구제부로보냇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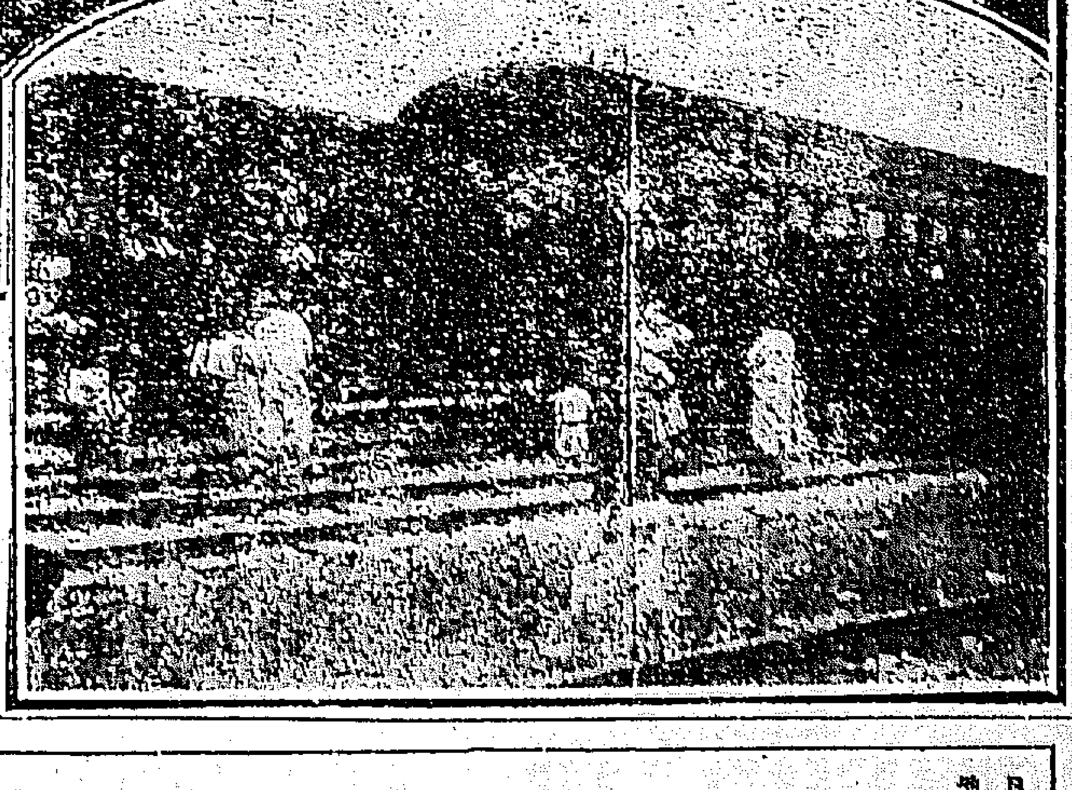
水害同情金

◇本社에들어온것

십구일본사에 드러온것은수재의 연금품은다음과갓다

◇市內嘉會洞鍵僧寺 朴大輸	十圓
◇南大門市場內正一精米所 李泉昌	二十圓
◇西四軒洞八 金東圭	三十圓
◇西四軒洞七 李善銘	十圓
◇黃金町一丁目 弘仁堂藥房靈神丸	百包
◇太平通二丁目一〇四 李康漢	五圓
◇橋北洞一〇二 車熙珽	一圓
◇橋北洞一〇三 車銀亨	五十錢
◇鍾路二丁目 壽山藥房靈神丸	二百包
◇鍾路五丁目 李舜薰	十圓
◇清進洞一〇一 義盛號典當鋪	十圓
◇嘉會洞一七八 李達銘	貳拾圓
◇壽松洞普成高等普通學校 學生一同	二十九圓二十錢
◇內資洞一六七 金潤錫	三十圓
◇苑西洞六九 林宗相	三百圓
(本社群山朝鮮日報에百圓 本社經由時代日報에百圓)	
◇授恩洞	
◇橋南洞四九 京一藥房萬靈丸	二百包
◇橋南洞一四二 李敬瑞	二十圓
◇橋南洞一四六 鄭鳳鉉	五十圓
◇京城府齋洞一六 李丙默	一百圓
◇師理宗教徒本部代表 俞鎭國	三圓
◇市內太平通二丁目 濟生堂藥房 淸心保命丹	三百包
◇市內本町四丁目 李賢陽	二十圓
◇市內[illegible]洞 吳東率	三十圓
◇市內[illegible]洞 李漢英	五圓
◇市內[illegible]洞 金永根	五圓
◇市內松月洞一一二 廣島貯蓄銀行員一同	五十圓
◇市內松月洞五〇 申寬鉉	三圓
◇市內和泉町一所商精米所 崔德明	白米一叭
◇寬勳洞 敬信契	五圓
◇寬勳洞 信裕社	五圓
◇市內公平洞 太西館	拾圓
◇市內鍾路二丁目一〇九番地 金秉能	拾圓
◇京城鍾路四丁目五十一番地 方泰卿	拾圓
◇市內敦義洞七九番地 洪宅柱	拾圓
◇市內西大門町二丁目 尹秀暎	三圓
◇京城鍾路天主堂修女院寄宿舍 寄宿生一同	金十一圓과衣服三十五件
◇市內貫鐵洞京城旅館 羅進玉	三圓
朝鮮鐵道救濟會 에그후드라는 녀자모피[illegible] 다음과갓다더라	
白龍成	白米一石
光成精米所 金洙瑩	五十圓
侍天敎靑年會	叭十枚
「쌍둥이」	三百個

◇前正日前本報에發表한以嗣洞九二李明弘氏取防往射數二十四枚와 數以嗣洞以李明弘氏取數誤記 [illegible]



◇寫眞說明◇

마포(麻浦)일대에 침수된광경(上)과 남대문역과 렬차안에 피난민들을수용한광경(下)

寫眞撮影하시는이에게告함

(南大門通朝鮮銀行前)

エム寫眞館

電話本局九九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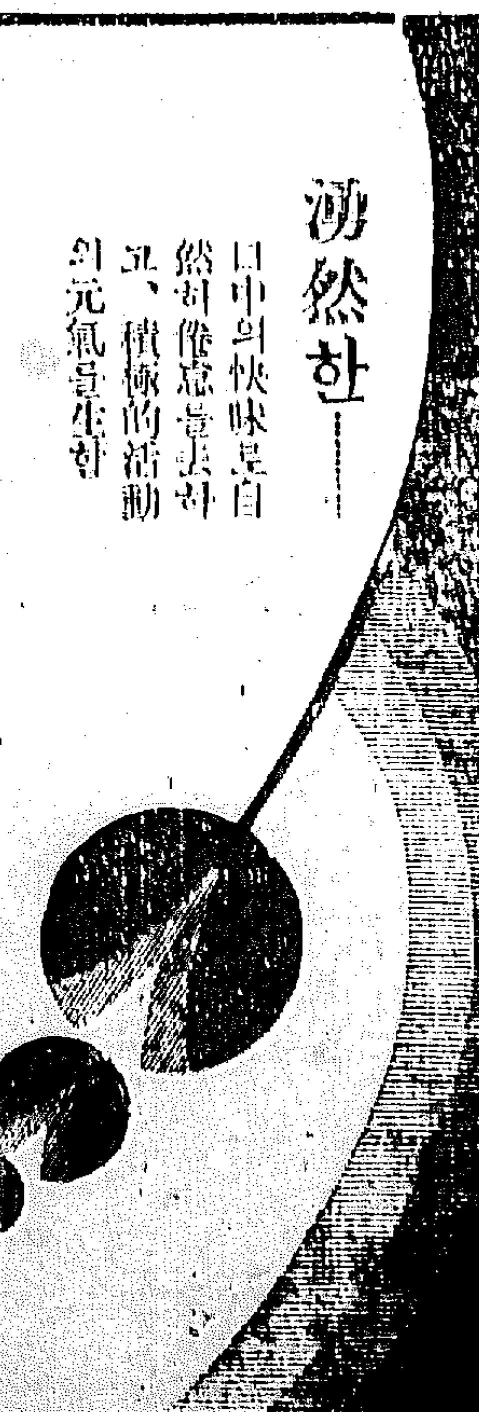
寫眞鏡玉은最新式독크鏡玉(他店에는無備가無함)●夜間撮影은當館獨特의實驗이올시다●人物의入品에는반드시호감대의美點을發見하야 이것을巧妙히技術로現出하고●寫眞의好惡은光線여하에잇슴니다●其外에本館主의職業에熱心한點과努力●寫眞의依頼는自身의條件을具備한處로모여드는가 寫眞이아름다운로도光色가잇습니다。

一、昨年은大阪每日新聞大懸賞寫眞應募에서二千餘枚中에서一等入選은本館이외다。

其他日本大都市의展覽會에入賞을爲한바는本館이技術全朝鮮一의다는證明이올시다

寫眞代價는技術에依하야上下가잇스나 本館은技術優秀하고도安價主義를實行하엿습니다 그外에는旣往의技術劣等한寫眞館이고價를만든지라도技術劣等의寫眞을高價로싸게하시면것과가른것이오니 前記와如히信用잇는本館으로오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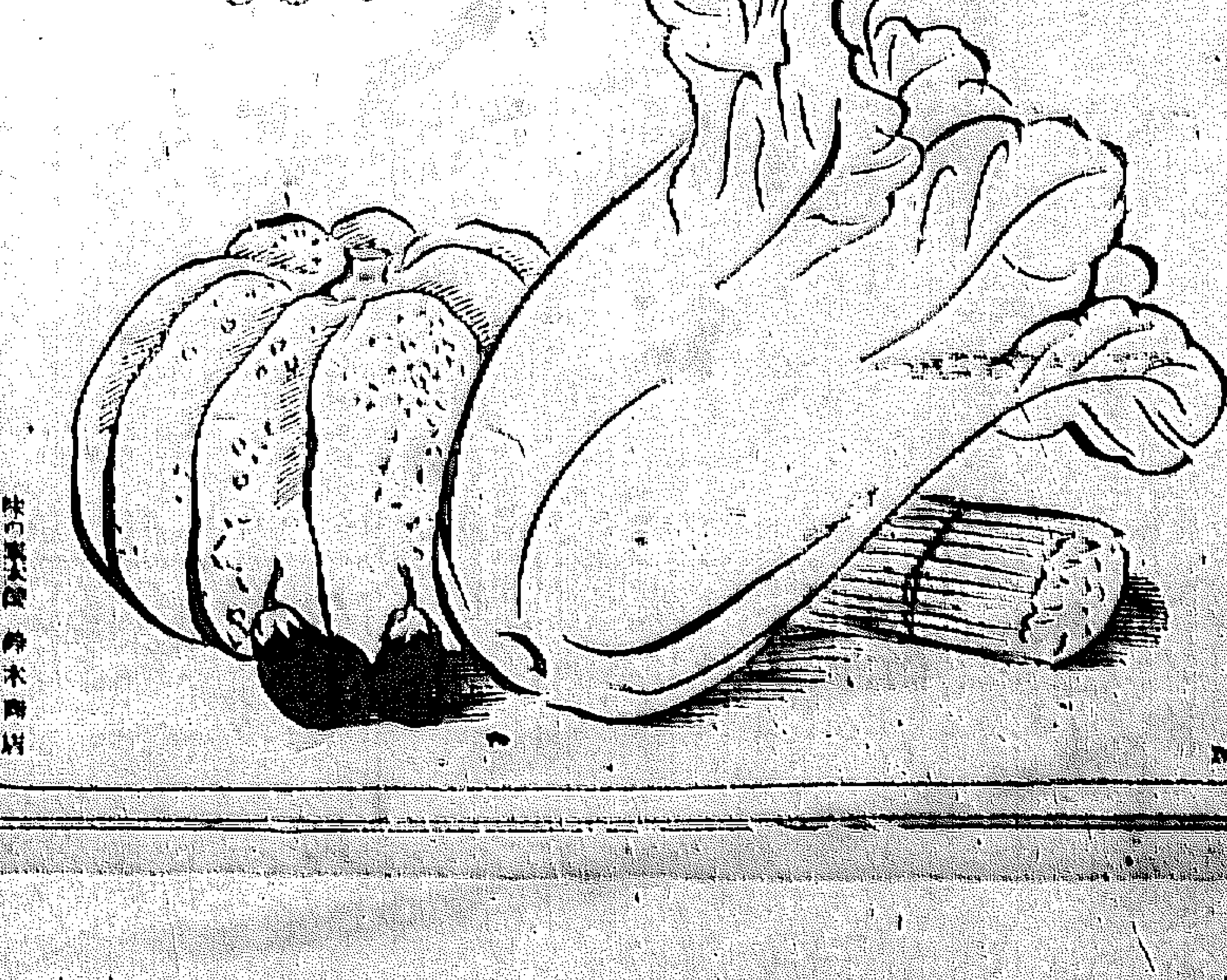
今後永久히二割半引特히學生諸人에게는半額、寫眞材料도販賣하고 現品의修整도합니다



料理의秘訣

아즉부터 저녁서지 잡수시는것은 무엇이든지모다 當時에美味化하게하는調味料 아지노모도(味の素)를恒常使用하시는부세서는料理의秘訣을 不知中에 會得하시게됩니다 料理는 食性에조코 조치아니한분이나 病人이나「아지노모도」(味の素)를밧든料理이면 滋養價도 高한故로大歡迎합니다

萬人用 調味料



文藝

殘酷한 破壞者
—水災에 對한 感想—

逍遙山人

自然은殘酷한破壞者인同時에 慈愛깁흔建設者일다 殘酷한破壞속에는 悽愴한地獄이發見되고 慈愛깁흔建設속에는 慈悲가發見되다 自然은아름답기도하고 밉살스럽기도하니 곱은꽃이피는장미나무에 살을찔으는가시가잇는格으로 꽃은넘우도 아름답고 가시는 넘우도 실다

그러면 우리는가시가무섭기때문에꽃을사랑치아니할것인가 또는꽃을사랑하기때문에가시를 밉어하지아니할것인가

◇

사랑하기때문에 밉어하고 밉어하기때문에 사랑한다는말이잇스니 이것은밉어하기위하야 밉어하는것이아니고 眞心으로사랑하기때문에사랑하는것만큼 그만큼한밉음이잇게되는것이다 우리가 自然을사랑하며밉어하는것도 結局은 이러한心情에起因된것이다 아날가殘酷한破壞인自然의行動을볼때에 우리는설은눈물을흘니지아니할수가업스니 이것은愛惜하는心情이깁고信賴함이두텁든만큼 넘우나不意에 나오는愛情을위한悔悲이다 ◇

逍日하야 하늘로서 떠러지는폭방울 살갓흔물줄기에 우리는日前에殘酷한破壞를보아 다리가날아나며 집이부서지고 小命이殞前의바람갓치 떤기어떠한人生은大自然의압헤서 엇지할줄을모르고不可抗力의運命에 한갓悲慘과悲哀의心情을부안고 잇을뿐이니 이點으로보면 自然은 어데까지든지無慈悲하다 하지안을수가업다 ◇

人類의생각에는自然이破壞者인同時에建設者라할지 모르것다만은 自然自身으로보면 自然은모든것에게 가튼法則으로대하야 모든創造된物件을어느편에든지 罪絡하는것일지도 모르겟다 自然은人生만을特別히도라보는생각가튼것은업슬것이니 人類의말하는正義니 自由니光明이니 文化니하는것은 結局自然에게는 아모러한意味가업슬것이다 그리하야 路邊에잇는조고만풀이나 나무닙우에 안즌조공만한버러지나 人類의運命에나 꼭갓흔것으로 어느것은重要하고 어느것은重要치안타는것이아니고 盲目갓흔自然의法則대로 運動하는것이니이에는悲慘과暗黑이잇슬뿐이다

◇

어려한意味로보면 人類가自然을信賴하며 崇拜하는것은人類自身의 둘데업는妄想일것이다 萬物의靈長이라고自稱하는그것과갓흔어리석음일것이나 人類가自然을사랑하는것은 사랑하기때문에 사랑하는것이아니고 밋음을위한 밋음으로 自己의生을保全키爲하야 心血을다하야싸호는것이라하지안을수가업다 이리하야人類는自然을反抗하기爲하야 應用科學의힘을빌기는하나 언커나無慈悲한自然은人類의모든것을 葬送하며破壞하여바리고만다 집을짓는게망이의苦勞를 어린아희가無心히들어보다가 그집이다建築되엿슬때에 비로소殘酷한破壞를더하는것과 마찬가지일것이다

◇

偉大하고殘酷한自然앞에는모든것이한갓恐懼征服할뿐이다 人類의모든 對抗策이 永久性의自然을 조공이라도 傷過치일수가업스니 『너의가이업는것은人類다』하는생각도업지아니하다 그러나人類는自然을對抗하며 征服지아니하고는自己의生을完全히할수가업다 自然과親하는것보다도 自然을征服함에서만 自己의安全을엇을것이다만은 人類가이러한武器를所有하엿다가 科學은아직도眞正한科學의彼岸에도 니르지못하엿스니 人類를爲하야一掬의熱涙를禁치못하겟다 人類가自然을征服하랴는것은結局嫉妬인破壞를밉다하고愛情만을所有하랴는데지나지못하나니한다。(完)

鐵窓回顧 (四)

李鳳洙

그三日後에朴兄의氣勢이업슴으로엇지된일을몰라서 더욱답々하다가 新聞社의편지를보고 나간것과 精神病에걸닌줄을確實히알게되엿슴니다 그리하야 [illegible] 맛치運命인것갓기도하나다 그러나한편생각하면元來身體가弱한데도關係가잇것겟지만은 入院後에病을稱託하야 運動에不注意하고하로죽쉐바리만取하야 窓窺에着心치아니한것이 第一잘못이아니엿든가도합니다 그러치만은 이도至今에말로하는말이지 眞相은오래된未決囚로發狂하지아니하는것이도리어異常하더니다

自殺의悲鳴

모든苦痛이一時에쏠어올때는우에말한朴兄모양으로 精神에異狀이나생기면多幸이지만은 만일그럿치도못하면 그다음에取할길은 生命을抛棄할수밧게업겟더니다 人間七十古來稀라 普通생각에는七十이라는歲月이 決코짧은歲月은아님니다 그러나 뭇이업는悠悠한天地에比하면 [illegible] 一時에맛보게되니五十步나百步나하는생각이웨안나겟슴닛가 十二月下旬 된추위가 휘풀니며 어듸갓서冬眠하든파리도 한마리이구석저구석으로 나라단이는때 어느날밤일이엿슴니다 看守가就寢을命함으로 자리펴고 드러누어 이생각저생각하다가 그물서 잠들든때에 어슴푸레하게『아이』하는소리가 [illegible] 看守가 [illegible] 나의番號를부름니다 [illegible] 케야對答을하엿더니목에두른衣服을버서버리라고합니다 나는前부터 목과이불사이로 들어오는 추위를막으라고 넓은바지를목에 두르고자는데 [illegible] 看守는『事故가發生한以上에는 [illegible]』고합니다 [illegible] 사람의職業心理란 참으로이상하더니다 萬端心懷가 물밀듯이 써러오르는그中에도 『그사람』의姓名만 알앗스면 무슨噴器로든지 新聞社에 알니여 그하소연을 調査하고십흐되 다『그사람』은只今어데잇는지 아직獄中에잇는지모르거니와 내々健康하기를빌며 그때에그 [illegible]

近代文藝紹介

모리에르

喜劇作家라고하면 누구나 『모리에르』(一六二二—一六七三)의일흠을생각치안을수업슬만하니 그는佛國에서만最大喜劇作家일뿐이아니고 實로世界의劇壇에獨特한地位를占領한 偉大한劇作家라하겟다 그는一六二二年에巴里의官廷商人의아들로出生하야 俳優가되며作家가될抱志를가지게되기는『코르네유』의喜劇을보고 만흔感興을밧은때부터始作되엿다 二十一歲되든一六四三年에 그가親으로『또세프·마데라앙』의私合에들어가서 俳優가되엿스나 그一行은窮乏한經濟的關係때문에 十個星霜이라는긴時間을 식골巡廻劇團으로지내지아니할수가업섯다 이동안에 『모리에르』는 觀客들이要求하는새롭은脚本이잇서야 할것을看破하고 自己가팔븐喜劇을써서演劇도하여보기는하엿다 만은조곰도成功하지못하엿다 그가劇作家로名聲이世上에 認定되기는一六五五年에 發表한『례두르듸』가巴里에上演되야 대단한好評을밧은때에 비롯되엿다 그다음에그가『리,데피,아물르』을發表하고 繼續하야 『무듀르』『아물』과『스가나려르』를쓴뒤에喜悲劇『동,가르시,듸,나바르』는自己에게適合한材料를發見하야 寬大와嚴格한 二個敎育法을對照하야 製作한『良人學校』를公開하게되자 從來의風俗喜劇에서 一轉하야 性格喜劇의境域에 니르게된것이다 이것이成功되야 國王의 御前에서演劇할『려,따수』를엇고連하야 文擅論爭의緒端이된『婦人學校』란것을 發表하엿스며 神學者一派의미움을밧아 世上에紛爭이러로 有名한『타르추프』를公開하엿다『타르추프』事件과前後하야 그는모든宗敎에 對한不信과嘲弄에 富한痛烈한『동,주앙』을 썻다

以上말한作品은 다그의傑作이다 만은翌年即一六六六年에 發表한『厭世家』에 이르러비로소 그의天才와精力이充分히 發揮되엿스니 살기어렵고外닭스럽은世上인줄을 알면서도 오히려生命을 繼續하지안으면아니될矛盾이 그作品의根底를흘너가는主題이다 그는그後에『客嗇家』니『想像病』이니하는것을發表하야 其作品이各々光彩를가지기는하엿스나 그러케卓越한빗은보이저아니하엿다 一六七三年二月十七日그의絶筆인『想像病』이上演되든날에 그는親히俳優로扮裝하고 舞臺에올나갓다가 갑자기卒倒하야 한번은回生하엿스나 抑志로狂笑한것이因緣으로 다시演劇을繼續하지못하고 그날밤十時에永久히돌아갓스니 年齡은五十二歲엿다

그는一生을作家와俳優를兼하야 처음에는식골巡廻를하면서 苦生하다가 『례,두르듸』가成功되야世上의認定을밧아 『콩티』侯의招待를밧아 五十八年巴里로 돌아와서는 『앙주』侯『필립』의愛護를밧앗고 『루이』十四世의 好遇를 밧게되엿슬때에 그의地位는社會的으로 確立되엿다 一六六二年에 女優『아르만드 베자르』와結婚하엿스나 夫婦의誼가조치못하야 家庭으로불幸의『모리에르』는 一生이不幸이엿스니 運命은 언케든지回藩을許치안는듯하다

「늘금」의노래

金剛耕夫

엇지하야 그대는 구름을모으는가
이는구름이놉거서그러하노라
三月이와서 봄노래가 놉흘때가되여도
나날이 구름을모아 비나리니
나는듯노라 흉쥐이는『늘금』의노래를

엇지하야그대는 눈물흘니는가
이는 지난생각봉치가 놉거서 그러하노라
三月이와서 봄노래가 놉흘때가되여도
나날이놉흔생각은눈물나리니
나는듯노라 흉쥐이는『늘금』의노래를

나는 얼마나 눈물업시살기를 바랏슬라
눈물업시 살냐면 무슨생각을 멀니하라
그러나생각을멀니보내랴면
아아멀더라 커녁과 맛춤그리고깁흔밤에
나는듯노라 무슨생각의 부르는『늘금』의노래를

迎夏哀詞

紫雲英

어데서왓는지온곳도몰으고어데로가는지 가는곳도몰으는一生을죽도록살어야 사람이? 무엇!이러며당한다하더도 독々하게어떠도지못하는 이사람이면서도 이차고무서운現世의生活에는 엇지하야 그러케도만흔未練과執着이잇스며 窮厄과拘束이잇는지모름니다 나는말할줄도업다 그리고 [illegible] 지금에와서는 그것조차생각나지도안는다

그러면사람은 무엇인가 몰으면몰으되 나의생각에는 [illegible] 哲學者의머리맛인골판갈은빌것도업시 [illegible] 다가는죽고....또그러하고하는것이 아마도사람의일인모양이오 이웨그러케無意識한것이아니라 [illegible] 그낫을는것이 意味가잇스다하면 사는것도엇더한意味가잇서야할것이오 사는것이엇더한意味가잇다하면 또한죽는것도반듯이 엇더한意味가잇서야할것이아닌가한다 그런데웨사람은世上에나가지고는 아모意味도 意識도업시다만피로운生活에밧부게쏫겨만다니다가 그네로마 [illegible]

追憶

金剛耕夫

내일커녕은大同江을 갓습시다
당신은우스며이러케말하면지
나는서슴업시네—하고우럿지요
그리고당신과나는 헤여커바렷다

그『내일커녕』에 나는 무엇을하엿나
나는친구에끌녀서키네마구경갓지
네—하고 옷은大同江구경은아조이젓지
그러고 빌서한해는 지나갓다

그大同江에나는혼자서잇다
당신의숨을하는말을그대로 늣긴다
보름달은오날커녁도 펴밝다
그리운녯날이여 다시한번마커지다
아아 넷기어려운追憶이여

◇時調◇

奉天行 (九首)

가람 (續)

◇瀋陽

우리들의(조상) 사든터야 어느곳이 아니리오
풀언덕 가을바람 솔숲도 하옵시고
시드는 야국화들도 임자업시 하더라

◇또

驛子는 잡혀서 사슴은 뛰고잇다
이곳을 버려두고 못가야 어데간고
또다시 風雲만일면 네어들가 하노라

◇또

한손에 [illegible] 두손을 부듸고
사람을 눌래일든 金將軍(應瑞)의죽엄터이
커늑은 버드나무미러나 아니든가 하노라

섯재아우 여한한날(三章)

짓어가는 한낫구에 자라나는 어린가지
구즌비 모진바람 다갓처 것거오다
그늘도 어울지못하여 가지하나 업기도다

◇또

놉기도 한고데 자기도 한고데
더벅머리 서로잡고 컵시밥은 다루든일
지금도 눈에비치어 보이난듯 하여라

◇또

너여한 그날부터 솟어하는 이내마음
그리운 생각이야 어느날에 아니라만
갓득이 오늘밤에는 못견디어 하노라

◇追悼李馨永君 (三章)

어머니 다여히고 남어잇는 한몸등이
허물은 이누리에 의지할곳 바이업다
그덕청 스므남은해 눈물지워 보냇서라

◇또

지난봄 꽃날림에 서로한번 갈림뒤에
소식은 몰들어도 잘잇는니 하엿더니
그날이 영리별인줄 알고다시 우노라

◇또

머나먼 다른고데 벌을어 누엇스니
내손에 물한목음 주어나 보앗스리
명이라 어이리마는 못내슬허 하노라

送春哀詞

洪淳明

[illegible]

[illegible] (月海의 편지)

第一信 (六年前) [illegible]

金君!— [illegible]

第二信 (四年前) 神戶에서 月海

金君!— 이작世上은나의가슴속에서 [illegible]

第三信 (三年前) [illegible]

第四信 (四年前) [illegible]

第五信 (四四月前) 大阪에서 月海

[illegible]

외로움의變調

金明淳

[illegible]

女子解放의雜感

別府在 裵平國 (續)

[illegible]

모시비에집생각이난다 (詩調)

靜州郞

비소리 잣々걸에듯고
엄시구나 모시비로다
아아 四年이엿서
잘든체 무릅치니
오느라 자고오리라나
남실남실

◇

달도외쉬웠은
에잔하고 에잔하니
비도외울비는
부즈럽고 귀찬킨만
나란게 農村아히라
깃붐밧게

◇

어제人날이 쨍々햇스니
보리人더를 널엇스리
누나는 들여차고
어머니 뒤처울켜
那那는 마르못해서
비아비아 노래하리

◇

감자웅 마커노코
올나가락 하시든걸
봄야봄야 떠나옴에
마차말도 못햇섯네

小曲二篇

秦雨村

숨사이를것님며

이밤이 비게인뒤하긴
못이닙가
◇ ◇
주르르 쏫는비가
얼마마나 고왓슬고
언덕빗 창고바니
이만해도 족한[illegible]만
못쏫은 권다래야라
쥬님늪지 엇덧지
(六·一四雨裡에서)

숨사이를것님며

김흔방울노 숨새를그넘면
새들은잠드려 달빗흠보구
비마우잠드려 녯벌판꿈드다
나무불흔드러 새잠을낡이면
내맘도나르고 달빗도낡녀
맘뜸은나래를 쉬일곳업서라
山根町에서

더기山쏙

서마둥히민 더—산기슭에
우리님산다오 역삭이온다오
내마음잇다오 헤국이울면은
淑寞도하구요 우리님삶면은
내마음길거워 떠나기실타오
京仁線車中에서

新刊紹介

[illegible]

質疑應答

[illegible]

再生 (六六)

長白山人 作 [illegible] 畫

하편 (一三〇)

[illegible]

[illegible]

金海水害後報

경남금해(慶南金海)군에서는락동강(洛東江)의 범람과더반(堤防)의 [illegible]로인하야 명지면(鳴旨面)을위시하야 [illegible] 한조사는 알수업스나 그피해상태의 대략은

◇金海面 ▲溺死者一人▲全壞家屋二三 [illegible]

◇大渚面 ▲生死不明四人▲流失家屋五三▲全壞家屋三五二▲浸水家屋六四二▲浸水畓七〇二三町步 田二〇〇町步

◇菉山面 ▲全壞家屋二▲浸水家屋五〇▲浸水畓六二七町步

◇酒村面 ▲浸水家屋三▲倒壞家屋二〇

◇進禮面 ▲浸水家屋五▲浸水畓一二三〇町步 田三〇町步

◇二北面 ▲全壞家屋二〇▲浸水家屋七六▲浸水畓三〇〇町步 田七五〇町步 六一六町步田二〇四町步

◇上東面 ▲流失家屋二一▲全壞家屋一二四▲浸水家屋二〇五▲浸水畓四〇〇町步田二〇〇町步

五町步田八五町步

이며 이외에가축의사상과 각종입사 [illegible] 아직 미상하다고 한다 (금해지국시일발전)

◎天氣豫報 [illegible]